

CEO 동성

### 철도산업 최고경영자과정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1일 한국철도협회와 매일경제가 공동 주관한 철도산업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철도산업 개혁과 건설업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갖고, "앞으로 현실과 동 떨어진 역무시설, 정거장시설 등 과다설계를 대폭 개선,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더 많은 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수도권고속철도 등 건설현장 방문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1일 수도권고속철도 지제정거장, 동탄정거장 등 수도권본부 건설현장을 방문, 국민과의 약속인 2014년 수도권고속철도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 건설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건설산업비전포럼 조찬 특강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1일 건설산업비전 포럼에서 '철도산업 개혁과 건설업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특강을 실시하고, "국민의 혈세가 경직성 경비로 둔갑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시공 중이거나 협상 중인 BTL민자사업의 과잉설계를 개선, 스마트한 철도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강조하였다.

### 호남고속철도 등 건설현장 점검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20일 호남고속철도 금강교, 갈산터널, 오송고가 등 충청본부 건설현장을 둘러보고, "해빙기 품질안전에 대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국민과의 약속인 2014년 호남고속철도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관리 등 건설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오리~수원 복선전철 등 건설현장 점검



김광재 이사장은 지난 13일 오리~수원 복선전철 매탄역, 방죽정거장 등 수도권본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운영을 고려한 건설계획 및 과잉시설 없는 경제설계를 당부하였다.

## '2012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賞' 수상

- 이용자 중심의 철도건설, 철도산업의 지속성장기반 마련 높이 평가 -



김광재 이사장이 지난 13일 '2012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賞' 지속가능경영 부문에서 창조적 경영을 일궈낸 자랑스러운 경영인(CEO)으로 선정, 수상하였다.

중앙일보가 주최하고, 지식경제부가 후원하는 '2012년 한국을 빛낸 창조경영인 賞'은 각 부문별로 글로벌 시장경쟁에서 과감한 추진력으로 블루오션을 창출하고, 창조적 경영 성과를 달성한 국내 공공기관 및 대기업 최고경영자들을 대상으로, 대국민 리서치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와 공정한 평가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이번 수상과 관련 황인태(중앙대학교 부총장)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를 통해 김광재 이사장이 2012년 글로벌 경영전략을 재검립하고, 철도의 과

잉 설계·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이용자 중심의 철도건설과 철도산업의 지속성장기반을 마련한 노력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2 창조경영인 賞' 수상과 관련 "공단이 추진하는 전략적 철도사업 관리와 철도 투자를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내 철도산업 발전과 철도중요성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효과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피력하였다.

(기획혁신본부 한성욱 기자)

## 호남고속철도 최장(最長) 계룡터널 상반관통

- 환경단체와 환경생태조사 공동시행으로 친환경 철도건설 -

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중 최장터널인 계룡터널(7,240m)의 상반을 관통하고 지난 20일 관통식을 가졌다.

공단은 국립공원 계룡산을 지표면에서 15m~200m 아래로 통과하는 계룡터널에 대해 지난 2006년 4월 설계단계부터 환경단체와 환경전문가들로 '환경생태모니터링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환경생태를 조사한 후 터널굴착 시 지하수위 저감, 양사·파충류 대체 서식지 조성, 수변공간 생태 공원화 등 환경·생태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공함으로써 환경단체·지역주민 등과 단 한건의 갈등사례 없이 계룡터널 상반 관통공사를 마치게 되었다.

계룡터널 상반 관통공사에는 1년 6개월에 걸쳐 사업비 1,030억원, 연인원 59,000명, 덤프트럭 등 장비 13,000대 등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었고, 굴착된 토사량은 918,000㎥로 잠실야구장만한 넓이를 90m 높이로 채울 수 있는 엄청난 양이다.

공단 관계자는 "호남고속철도는 현재 41.1% 공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궤도·전차선 등 후속공사를 시행한 뒤 고속열차를 투입한 종합시운전 등을 거쳐 2014년 말까지 완공하여 개통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본부 박윤식 기자)



# 경 호남고속철도 계룡터널 관통식 축

일시 : 2012. 3. 20(화) 14:00

## 전라선 고속화사업 종합시험운행 개시

- 여수 EXPO 대비 4.30일 고속화사업 완료 -

공단은 전라선(익산역~여수엑스포역) 고속화 사업 시공이 지난 11일 완료됨에 따라 3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 구간에 KTX 및 KTX-산천을 투입하여 최고속도 230km/h까지 증속하는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은 기존 전라선에 열차가 최고속도 230km/h로 운행할 수 있도록 기관사가 운전실내에 표시되는 신호를 확인하며 운전할 수 있는 차상신호시스템(ATP)을 구축하고, 1m에 50kg 레일용 분기기 설치와 전차선로 정밀조정 등 총사업비 1,061억원을 들여 지난해 9월 공사를 시작, 금번 종합시험운행을 거쳐 세계 여수박람회 개최 이전인 4월 30일 개통될 예정이다.

공단은 종합시험운행기간 중 총 84회 시험열차를 투입하여 고속화 철도시설물(궤도, 전차선, 신호설비 등)을 궤도 변위계측기와 전차선 아크 측정기 등 첨단장비를 동원하여

새로 설치한 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철도차량의 운행 적합성 등을 확인·점검한다.

전라선 고속화사업이 완료되어 KTX가 최고속도 230km/h 운행하게 될 경우 용산역~여수엑스포 구간을 2시간 57분대로 운행할 수 있게 되어 지역발전과 여수엑스포 이용자의 철도이용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영록 호남본부장은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 전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박람회장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과 지역주민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